

<박유하씨의 작업>

가라타니 고진

최근 들어 한일,중일간 긴장이 높아진 것은 일본정부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.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(일본)내 제반 문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. 그리고 대외적인 긴장/대립을 이용해서 일본을 언제든지 전쟁가능한 체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. 따라서 위안부문제든 영토문제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.

내가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일본국민이기 때문이다. 외국의 경우는 그 나라 국민들이 (자국을)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. 실제로 한국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. 나는 그러한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해 왔다.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되는 일이 있다.

그 점에서, 나는 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서 발신하려 해 온 박유하 교수에게 주목하고 있다. 그녀의 작업은 한국에서는 친일적이라고 비난 받고 일본에서는 반일적이라고 비난 받을 것이다. 그것을 처음부터 각오하고 오랫동안 위안부문제에 천착해 온 박유하 교수에게 나는 깊은 경의를 품고 있다.

(2014년 8월)

<원문>

パク・ユーハ氏の仕事

柄谷行人

近年、日韓や日中間の緊張が急激に高まって来たのは、日本の政府があえてそれを作りだそうとしているからだ。それによって、国内における諸問題を打ち消すためである。そして、対外的な対立・緊張を利用して、日本をいつでも戦争できる体制に変えようと図っている。したがって、従軍慰安婦問題であれ領土問題であれ、それらを解決する気などさらさらない。

私がこのように日本の政府を批判するのは、日本の国民だからだ。外国に関しては、その国の国民が批判するだろうと思う。実際、韓国にもそのような人達が大勢いる。私はこうした相互的信頼にもとづいて活動してきたのである。とはいえ、それだけではすまないことがある。

その点で、私は、積極的に日本と韓国の間立って発言しようとしてきたパク・ユーハ氏に注目している。彼女の仕事は、韓国では親日的と非難され、日本では反日的と非難されるだろう。そのことを最初から覚悟して、従軍慰安婦問題に長年取り組んできた氏に、私は深い敬意を抱いている。

(2014年8月)

